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a Profession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 with Infants and Toddl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양수진¹ 신나리²

Su-Jin Yang¹ Nary Shi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a profession on the quality of their interaction with infants and toddler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ir emotional dysregul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hildcare teachers work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A mobile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282 sets of results have been collected. Moderating effects have been explored with the use of PROCESS Macro (version 3.5) Model 1.

Results: The main findings showed that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dysregulation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active motivation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 with infants and toddl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work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to regulate their emotions can simultaneously play a role as a protective factor as well as a risk factor for the quality of interaction. Also, it was revealed that is necessary to give pre-service teachers an opportunity to deliberate on their motivations for a childcare teacher position.

key words active motivation for choosing a profession, emotional dysregulation, quality of interaction, childcare teacher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2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졸업

²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영유아의 어린이집 취원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전면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영아가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에서 기관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공적 보육의 필요성 및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의 질 제고는 그간 보육사업의 핵심이 되어 왔다(보건복지부, 2017.12).

보육의 질은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구분되어 다양한 특성들이 탐색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은 특성은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이다(Howes et al., 1992). 상호작용은 기관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된다(김기철, 신애선, 2016; 안경자 등, 2013). 특히 영아에게 있어 보육교사는 기관 맥락에서 애착을 맺고 정서적 안정기반 역할을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교사가 영아와 교류하고 반응하는 정도와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준에 따라 영아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감 및 또래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에(김영숙, 신나리, 2013),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교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탐색되어왔다.

먼저 영아가 교사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곽희경, 2011; Jamison et al., 2014). 적극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의 경우 담당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증진되고(Mitchell-Copeland et al., 1997),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놀이에 참여하며(Cassibba et al., 2000),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등의 자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Howes & Smith, 1995). 국내 연구에서도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며(유지연, 황혜정, 2015), 교사의 반응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어휘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김지연, 2017)으로 나타났다.

한편 Howes 등(1994)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부적응 행동 또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아와의 애착 형성은 교사의 상호작용 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교사가 통제적이며 방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영아는 높은 공격성과 반항성 등을 보이며(이선영, 2006), 영아의 정서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경우에는 영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ostelnik et al., 2017). 또한 긍정적이지 못한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주의집중 중에 부적응 영향을 미치며(안문실, 2013), 영아의 활동과 놀이에 대한 몰입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조해연, 2014).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질의 다각적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관찰도구로 Pianta 등(2008)이 개발한 CLASS(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를 들 수 있는데, 그중 교사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살펴본 ‘정서적 지원’영역에서는 학습을 긍정적 분위기와 부정적 분위기로 구분하여 긍정성과 부정성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신나리, 오정순, 2015).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는 생애초기 양육자와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통제적인 부정적 특성도 함께 고려한 연구(양소영, 2013; 조해연, 2014; 주현정, 신혜원, 2018)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아의 요구를 적절히 이해하고 민감하며 애정적인 반응으로 영아의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격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영아와의 관계에 있어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허용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은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 또한 함께 주목받아왔다. 이는 영아교사의 개별적 특성 또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이지영, 성지현, 2020), 영아교사가 보육실에서 보이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동기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기관 사전적 의미로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 요인의 총칭으로 인간의 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 행동의 근원이 된다(남궁미경, 2011). 이러한 동기는 직무수행 시 다양하게 발견되는데, 교사의 경우 교육관 및 아동을 대하는 태도 등에 있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주연, 2006). 교사의 직업선택동기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Huberman(1993)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직업선택동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능동적 동기와 경제적 안정성과 전문직이라는 신분보장 등을 기준으로 선택한 물질적 동기,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닌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수동적 동기로 구분된다(변예지, 안선희, 2018).

Deci와 Ryan(1985)은 타인의 통제적 상황과 같은 외재적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자발적인 몰입과 관련된다고 보았다(김지은, 2006). 이러한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능동적 동기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적성과 사명감을 기초로 스스로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로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능동적 동기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보육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이순아, 박은영, 2020), 직무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영휴, 2020). 또한,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상호작용 질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이지영과 성지현(2020)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보육에 임하는 자세나 성실함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정서조절곤란을 들 수 있다. 정서조절은 정서지능의 핵심적 요소이며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적 경험에서 자신이 목표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정미애, 유경훈, 2021). 영아교사의 주 업무인 영아와의 교류는 매 순간 다양한 정서를 다루어야 하기에(박은희, 김정화, 2020; Zembylas, 2003), 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이 요구된다(윤혜성, 2008; 이경례, 문혁준, 2016; 이승미, 이승연, 2009; Hargreaves, 1998; Intrator, 2006).

반면 정서조절곤란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서적 취약성을 의미한다(Barnow et al., 2009).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이 부족하고,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서반응의 조절 및 융통성 있는 전략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더불어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충동적 행동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또한 부족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용래, 2007). 특히 정서조절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강

화되고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Greenberg, 2002). 따라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의 지각과 전달이 어렵고 성인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교사가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는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조절의 역기능적 측면인 정서조절곤란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하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나미경(2012)은 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예비 영유아교사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외현적 행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힌 김춘경과 조민규(2017)의 연구를 통해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상호작용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박은희, 김정화, 2020; 이선미, 이승미, 2013), 정서지능이 낮은 교사는 감정 조절의 부족으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조혜진, 김수연, 2012). 또한, 정서노동이 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이선미와 이승미(2013)의 연구에서 교사의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영아교사가 직업선택에 있어 능동적 동기로 보육교사직을 선택하였을 경우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활동을 보일 것이라 기대되나 이러한 영향력은 교사의 정서조절곤란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어떠한 수준의 상호작용을 실행하는지를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가 되기 전·후인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 모두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 정서조절곤란 및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0~2세 영아반 담임교

사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교사의 평균연령은 37.7세였고, 4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30대 34.8%, 20대 19.9%, 50대 이상 8.9%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대학 졸업 42.9%, 대학원 졸업 8.2%, 고등학교 졸업 5.7%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가 담당하는 반의 연령은 만 2세 46.5%, 만 1세 31.2%, 만 0세 18.1%, 혼합연령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기혼 66.3%, 미혼 33.7%의 분포를 보였다. 영아교사의 평균 경력은 8.3년이었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의 교사가 34%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의 교사가 30.1%, 10년 이상~ 15년 미만 23.0%, 15년 이상 12.8%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25.2%, 가정 19.9%, 민간 16%, 사회복지법인 9.9%, 법인, 단체 등 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82)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결혼상태	
20대	56(19.9)	미혼	95(33.7)
30대	98(34.8)	기혼	187(66.3)
40대	103(36.5)	경력	
50대 이상	25(8.9)	1년 미만	10(3.5)
M(SD)	37.7(8.2)	1년 이상~5년 미만	75(26.6)
최종 학력		5년 이상~10년 미만	96(34.0)
고등학교 졸업	16(5.7)	10년 이상~15년 미만	65(23.0)
2·3년제 대학 졸업	121(42.9)	15년 이상	36(12.8)
4년제 대학 졸업	122(43.3)	M(SD)	8.3(5.8)
대학원 졸업	23(8.2)	설립 유형	
담당 연령		국공립	76(27.0)
만0세	51(18.1)	사회복지법인	28(9.9)
만1세	88(31.2)	법인·단체 등	6(2.1)
만2세	131(46.5)	민간	45(16.0)
혼합	12(4.3)	가정	56(19.9)
		직장	71(25.2)

2. 연구도구

1) 상호작용 질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질을 측정하기 위해 Arnett(1989)의 Caregiver Interaction Scale(CIS)을 Colwell 등(2013)이 타당화 하고, 양소영(2014)이 번안한 ‘상호작용의 질 척도(Caregiver Interaction

Scale: CIS)’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민감성(10개 문항), 엄격함(9개 문항), 무관심(4개 문항), 허용(3개 문항)의 4개 차원,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주 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베리맥스로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허용과 무관심 차원 문항은 단독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두 차원의 내적합치도 또한 무관심 .46, 허용 -.10으로 낮았으며, 스크리도표 검토 결과에서도 적절한 요인의 수가 2개로 추출되어, 긍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민감성’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엄격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민감성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은 ‘영아에게 따뜻하게 말한다’이며, 엄격함의 대표 문항은 ‘영아에게 짜증을 내거나 적대감있게 말한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특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민감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 엄격함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8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2) 능동적 직업선택동기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는 직업 선택단계의 동기로서, Huberman (1993)의 교직선택동기 분류와 최주연(2006)이 제작한 도구를 참고로 남궁미경(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능동적 동기(5문항)와 수동적 동기(5문항), 물질적 동기(5문항)의 3개 차원,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능동적 동기’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대표 문항은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선택에서의 능동적 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85이었다.

3) 정서조절곤란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 측정을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충동 통제 곤란(7문항)과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7문항), 정서적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6문항), 목표 지향 행동수행 어려움(4문항)의 6개 차원,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곤란의 대표 문항은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혼란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9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0~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응답 소요시간과 문항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6명의 영아반 담임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2주간 모바일 설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연구 수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예비조사 참여자 피드백을 기초로 일부 문항의 진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수정된 문항은 상호작용 질의 ‘영아가 복종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와 ‘영아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기대한다’로, 해당 문항은 각각 ‘영아가 내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중요시한다’와 ‘영아가 알아서 잘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로 수정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만0~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편의표집하고, 표집된 교사를 통해 다른 영아반 담임교사를 추천받는 눈덩이 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연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294부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 8부와 담당 영아 수가 1명인 교사의 응답 4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8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version 3.5)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 산출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상호작용 질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정서조절곤란, 상호작용 질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적 통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는 민감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 = .47, p < .001$), 정서조절곤란($r = -.29, p < .001$) 및 엄격함($r = -.26,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은 민감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 = -.55, p < .001$), 엄격함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54, p < .001$), 민감성과 엄격함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52, p < .001$).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 = 282)

구분	능동적 직업선택동기	정서조절곤란	민감성	엄격함
능동적 직업선택동기	1.00			
정서조절곤란	-.29***	1.00		
민감성	.47***	-.55***	1.00	
엄격함	-.26***	.54***	-.52***	1.00
M	3.84	2.09	3.50	1.57
SD	.68	.59	.37	.38

*** $p < .001$.

주.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정서조절곤란은 5점 척도, 상호작용 질은 4점 척도임.

2.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조절효과

1)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능동적 직업선택동기는 민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 = .20, p < .001$), 조절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27, p < .001$). 또한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정서조절곤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 = .12, p < .01$). 결과적으로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조절곤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즉,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곤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N = 282)

구분	B	S.E.	t	LLCI	ULCI
능동적 동기	.20	.03	7.64***	.15	.25
정서조절곤란	-.27	.03	-9.04***	-.33	-.21
능동적 동기×정서조절곤란	.12	.04	2.89**	.04	.20
R			.65		
R ²			.43		
F			68.68***		

** $p < .01$, *** $p < .001$.

먼저 정서조절곤란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에서(-1SD = .13)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t = 3.94, p < .001$), 정서조절곤란이 평균인 집단에서도(1SD = .20)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 = 7.64, p < .001$). 또한 정서조절곤란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에서(+SD = .27)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 = 6.90, p < .001$). 이상과 같은 조건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조절곤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낮을수록 민감성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낮은 집단에서는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낮아지더라도 민감성의 수준에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직업선택동기에서의 능동성이 낮을수록 따뜻하고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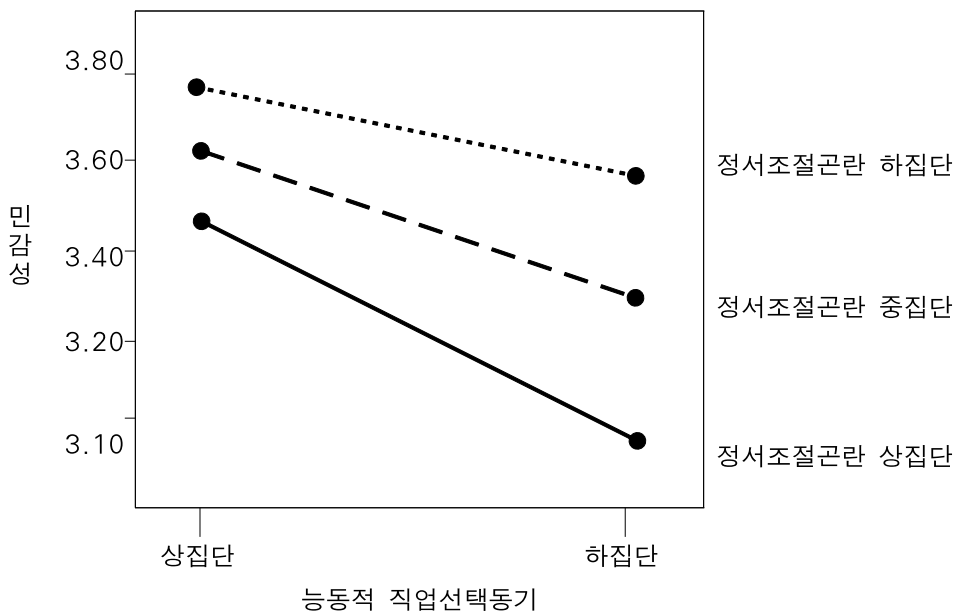


그림 1.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2)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 = -.08, p < .01$), 조절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32, p < .001$),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정서조절곤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 = -.15, p < .01$). 결과적으로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조절곤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즉,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곤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N = 282)

구분	B	S.E.	t	LLCI	ULCI
능동적 동기	-.08	.03	-2.80**	-.14	-.02
정서조절곤란	.32	.03	9.53***	.25	.38
능동적 동기×정서조절곤란	-.15	.05	-3.13**	-.24	-.05
R			.58		
R ²			.33		
F			46.01***		

p < .01, *p < .001.

먼저 정서조절곤란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SD = -.01)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서조절곤란이 평균인 집단에서(SD = -.08)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t = -2.80, p < .01$), 평균보다 높은 집단에서도(+SD = -.17)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 = -3.84, p < .001$). 이상과 같은 조건부 효과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조절곤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낮아질수록 엄격함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직업선택동기의 능동성이 낮아지더라도 엄격함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직업선택동기에서의 능동성이 낮을수록 위협적이며 적대적 상호작용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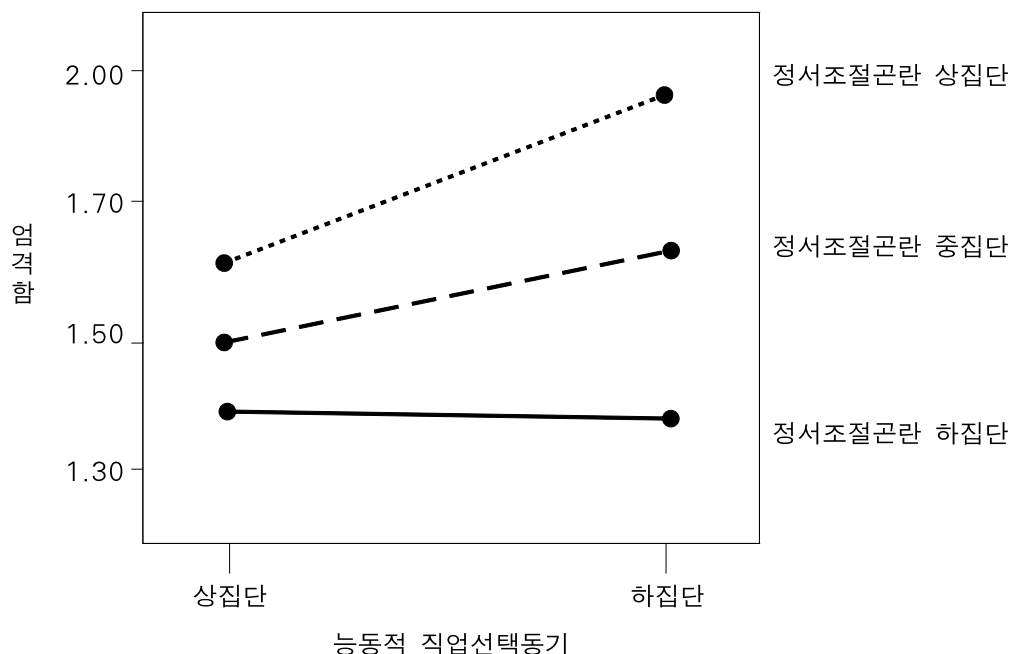


그림 2.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영아의 증가와 영아 발달에 있어 교사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정서조절곤란에 주목하고, 이들 변인이 민감성과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아교사가 되기 전의 특성인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보육교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조절곤란 정도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아와의 상호작용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상호작용 질 중 민감성과 정적 상관 및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교사가 능동적 동기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경우 상호작용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지영과 성지현(202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영아교사가 자신의 적성과 사회적 존경 및 자아실현 등을 목적으로 능동적 동기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경우 보육헌신(변예지, 안선희, 2018; 서미정, 이경남, 2017)과 역할수행(이현주, 2015; 오수진, 장영숙, 2011; 윤경혜, 2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교사는 영아와의 관계에 있어 반응적이며 열정적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영아교사의 직업선택에 있어 능동적 동기는 상호작용 질 중 엄격함과 부적인 상관과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동적 의지가 아닌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직업을 선택한 유아교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로 인해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이순아와 박은영(2020)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처럼 직업선택동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사명감, 태도, 가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적성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직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상호작용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기에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중 능동적 직업선택동기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으로 보육교사(인성)론을 들 수 있는데,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정 내용을 정하고 있는 표준교과개요(한국보육진흥원, 2020.12)에 따르면 ‘보육교사(인성)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보육철학, 직무수행, 역량개발 등이며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능력, 적성 등을 점검하고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영아교사의 직업선택동기는 교직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자아실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자신의 동기적 측면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은 상호작용 질 중 민감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과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조절의 역기능적 부분이기에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는 영아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 질 또한 높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이승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에 있어 교사의 정서지능(정미라 등, 2016; 조혜진, 김수연, 2012)과 정서조절능력(박은희, 김정화, 2020; 이경례, 문혁준, 2016)의 중요성을 보고한 연구들과도 유사하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통제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은 상호작용 질 중 엄격함과 유의한 정적 상관과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조절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김영은, 이희선, 2016)와 초등학교사의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나미경,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빈번하게 놓이게 된다. 이때 정서조절의 실패는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진 정서조절곤란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과도하게 경험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사의 힐링과 필수적인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소명감 및 자존감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기 이해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지원을 진행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김승훈, 2021). 이와같이 교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마련으로 영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면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민감성과 엄격함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은 교사의 경우 직업선택에서의 능동성이 낮을수록 민감성은 낮아지고 엄격함 정도는 높아졌다. 이에 직업선택동기의 능동성은 떨어지고 정서조절곤란을 자주 경험하는 교사 집단의 경우, 민감한 상호작용은 가장 덜하는 반면 엄격한 상호작용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의 질이 높았던 교사 집단에서는 직업선택동기와 상호작용의 질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교직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였을 때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오숙자, 박은주, 2015)고 하였다. 또한 서미정과 이경님(2017)은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능동성에 해당하는 셀프리더십을 증진시켜 보육에 헌신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종합해보면, 교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유지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민감성을 높이고 엄격함을 낮춰,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능동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서조절의 곤란을 경험하지 않고 조절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교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서

조절에 있어 큰 문제없이 제어가 가능한 유능감은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같은 동기적 특성을 상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동기는 직업선택단계에서의 동기로서, 사전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능동성의 영향력을 정서조절곤란이 조절함을 밝혔다.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의 경험은 보육현장에서 능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교사의 동기를 낮추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로써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 발달단계별 동기와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작용 질의 원적도는 민감성, 엄격함, 무관심, 허용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민감성과 엄격함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무관심과 허용은 상호작용의 부정적 특성을 엄격함과 다른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인 바, 이들 특성에 대한 지속적 탐색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기초하여 내적 욕구인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직업선택동기를 구성하는 물질적 동기와 수동적 동기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이 보고되고 있으므로(이순아, 박은영, 2020; 이지영, 성지현, 2020),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두 차원의 동기적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여 링크 접속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눈덩이 표집법은 연구대상을 찾기 힘든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확률표집방법에 해당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확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교사의 능동적 직업선택동기와 상호작용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각각 차별화된 교육과 중재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보육현장에서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 단계에서의 보육교사직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현직교사들의 다양한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과 관리방안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그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성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영휴 (2020). 보육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직무태도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철, 신애선 (2016). 영아교사의 전문성, 민감성, 행복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관계 및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6(2), 57-82. <https://dx.doi.org/10.21213/kjcec.2016.16.2.57>

- 김승훈 (2021.8.25).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위한 ‘온라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부산제일경제**,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402>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 김영숙, 신나리 (2013).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29-249. <https://doi.org/10.14698/jkce.2013.9.5.229>
- 김영은, 이희선 (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10(1), 49-72.
- 김지연 (2017).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6). 교직원몰입과 교사의 효과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춘경, 조민규 (2017). 예비영유아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6(2), 23-40. <https://doi.org/10.17643/kjce.2017.26.2.02>
- 나미경 (2012). 초등학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미경 (2011). 유아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직 몰입 및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김정화 (2020).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 능력, 정서조절 능력이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523-54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523>
- 변예지, 안선희 (2018). 유치원 교사의 교직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원장의 감성리더십, 동료교사의 정서적지지, 교직선택동기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4), 263-284. <http://dx.doi.org/10.22155/JFECE.25.4.263.284>
- 보건복지부 (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238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서미정, 이경남 (2017). 영아교사의 정서지능, 교직선택동기, 셀프리더십 및 보육헌신간의 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45-166. <https://doi.org/10.20437/KOAECE22-4-07>
- 신나리, 오정순 (201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유아 인성 발달 영향 요인 연구: 교사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59-85. <https://doi.org/10.14698/jkce.2015.11.2.059>
- 안경자, 장선경, 박영신, 손윤희, 김진희 (2013).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현장이야기**. 공동체.
- 안문실 (2013).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과 교사-영아 상호작용행동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5(1), 55-72.
- 양소영 (2014).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수진, 장영숙 (2011). 공립유치원 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 및 직무능력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4.
- 오숙자, 박은주 (2015).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직선택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아동복지연구, 13(2), 79-97.
- 유지연, 황혜정 (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https://doi.org/10.14698/jkce.2015.11.3.001>
- 윤경혜 (2001). 초등학교 여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직무수행 수준의 실태 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성 (2008).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인격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2), 149-175.
- 이경례, 문혁준 (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1-23.
- 이선미, 이승미 (2013). 영아교사의 정서노동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8(6), 153-180.
-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아, 박은영 (2020).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교직현신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5), 1001-1019.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1001>
- 이승미, 이승연 (2009). 만 2세 영아반 교사로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97-322.
- 이지영, 성지현 (2020). 영아반 보육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상호작용 질에 미치는 영향: 직업선택동기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1(2), 57-71. <https://doi.org/10.5723/kjcs.2020.41.2.57>
- 이현주 (2015). 보육교사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5(4), 93-112.
- 정미라, 김세경, 김민정 (2016). 유치원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놀이교수효능감과 교직전문성 인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137-157.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3.137>
- 정미애, 유경훈 (2021).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9), 324-332. <https://doi.org/10.5762/KAIS.2021.22.9.324>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https://doi.org/10.15842/kjcp.2007.26.4.012>
- 조해연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 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진, 김수연 (2012). 영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89-208.
- 주현정, 신혜원 (2018). 교사의 전문성 인식, 교수 의도 행동에 따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한국보육학회지**, 18(2), 1-15. <https://doi.org/10.21213/kjcec.2018.18.2.1>
- 최주연 (2006).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육진흥원 (2020. 12).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교과목 표준교과개요**. <https://chrd.childcare>.

- go.kr/ctis/community/data/DataSl.jsp?flag=Sl&BBSGB=641&BID=82135&offset=0&programId=T0001PG00001620&BVIEWGB=2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 Arnett, J. (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s: Does training mat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541-552. [https://doi.org/10.1016/0193-3973\(89\)90026-9](https://doi.org/10.1016/0193-3973(89)90026-9)
- Barnow, S., Stopsack, M., Grabe, H. J., Meinke, C., Spitzer, C., Kronmüller, K., & Sieswerda, S. (2009). Interpersonal evaluation bia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5), 359-365. <https://doi.org/10.1016/j.brat.2009.02.003>
- Cassibba, R., Van Ijzendoorn, M. H., & D'Odorico, L. (2000). Attachment and play in child care centre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ttachment Q-sort for mothers and professional caregiver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241-255. <https://doi.org/10.1080/016502500383377>
- Colwell, N., Gordon, R. A., Fujimoto, K., Kaestner, R., & Korenman, S. (2013). New evidence on the validity of the Arnett Caregiver Interaction Scale: Results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birth cohor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8*(2), 218-233. <https://doi.org/10.1016/j.ecresq.2012.12.00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num Press.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https://doi.org/10.1023/B:JOB.0000007455.08539.94>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greaves, A. (1998). The emotional practice of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4*(8), 835-854. [https://doi.org/10.1016/S0742-051X\(98\)00025-0](https://doi.org/10.1016/S0742-051X(98)00025-0)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 (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65*(1), 264-273.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4.tb00749.x>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639.x>
- Howes, C., & Smith, E. W.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 Research Quarterly*, 10(4), 381-404. [https://doi.org/10.1016/0885-2006\(95\)90013-6](https://doi.org/10.1016/0885-2006(95)90013-6)
- Huberman, M. (1993). *The lives of teachers*. Teachers College Press.
- Intrator, S. M. (2006). Beginning teachers and the emotional drama of the classroo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7(3), 232-239. <https://doi.org/10.1177/0022487105285890>
- Jamison, K. R., Cabell, S. Q., LoCasale-Crouch, J., Hamre, B. K., & Pianta, R. C. (2014). CLASS - Infant: An observational measure for assessing teacher - infant interactions in center-based child car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4), 553-572. <https://doi.org/10.1080/10409289.2013.822239>
-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 Rupiper, M. L. (2017).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교문사. (원판 2009)
- Mitchell-Copeland, J. , Denham, S. A., & DeMulder, E. K. (1997). Q-sort assessment of child-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27-39.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0801_3
- Pianta, R. C., La Paro, K. M., & Hamre, B. K. (2008).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manual, Pre-K*. Paul H. Brookes
- Zembylas, M. (2003). Interrogating “teacher identity”: Emotion, resistance, and self formation. *Educational Theory*, 53(1), 107-127. <https://doi.org/10.1111/j.1741-5446.2003.00107.x>

논문투고: 22.06.23.

수정원고접수: 22.09.06.

최종게재결정: 22.09.19.